

구성주의적 합리주의와 진화론적 합리주의*

민 경 국**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전통에서 유래된 진화론적 인식론의 시각에서 볼 때, 프랑스 계몽주의 전통에서 비롯된 구성주의적 합리주의는 수많은 인식론적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 중요한 오류는 첫째로 인간이성에 대한 무한한 신뢰이다. 둘째로 명시적 지식만을 유일한 지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점이다. 구성주의는 이와 같이 지식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인간사회는 물론 자연에 개입하려고 한다. 그러나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 상당부분은 과학에 의해 접근하기가 불가능한 암묵적 지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은 사회에 대해 경외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사회의 자생적 힘에 의존해야 한다. 이러한 우리의 진화론적 입장은 진화에 대한 과학적 인식의 어려움을 인정하는 생물학적 진화론자들이 자연에 대한 경외감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과도 일치한다.

【주요어】 구성주의적 합리주의, 진화론적 합리주의, 암묵적 지식, 자생적 질서, 문화적 진화, 초 의식적 정신, 과학주의

1. 머리말

우리나라의 경제학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구성주의적 합리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는 주류 경제학이다. 필자는 경제학자로서 지금까지 주로 저서나 논문 및 시평을 통하여 진화론적 합리주의 시각에서 이 주류

* 이 논문은 한국과학철학회 2000년 하계 학술발표회 「과학적 합리성 재조명」에서 발표하고, 두 논평자의 논평을 참고로 수정한 것임. 당시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한상기 교수, 최희봉 교수와 그리고 이 토론에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논평자들의 논평을 참작하면서 이 글을 수정하려고 노력했다. 물론 틀린 것이 있지만 전적으로 필자의 책임이다.

** 강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경제학을 논평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학자가 철학자들 앞에서 본 주제를 발표할 만큼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매우 의심을 갖고 이 주제를 집필했다.

역사적으로 생성되어 현재 살아있는 이념들이 아무리 다원적이고 복잡하다고 하더라도, 이 이념들을 전형에 맞추어 분류한다면, 아마도 그들은 구성주의적 합리주의와 진화론적 합리주의로 분류될 수 있는 것 같다. 이념적 갈등도 두 합리주의 사상의 갈등으로 환원될 수 있을 것 같다.

한 권의 책으로 다룬다고 해도 모자랄 만큼 매우 방대한 주제라는 것을 무릅쓰고, 이 두 가지 합리주의 사상의 차이점을 밝히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그러나 그 차이점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찾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정치철학적 관점 또는 윤리학적 관점 등 수없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이념적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원적인 관점일 것이다. 그 근원적인 관점은 아마도 인식론적 관점일 것이다. 지식의 성격과 지식의 변동을 다루는 인식론이야말로 모든 학문의 가장 근원적인 출발점이고 또한 모든 이념은 인식론을 명시적으로나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고, 그리고 이 전제로부터 정치철학적 또는 윤리학적 관점이 도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인식론을 중심으로 두 합리주의를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제2장에서는 두 사상의 역사적인 전개과정을 개관한다. 어느 한 이념의 내용을 파악하는 방법은 지성사적 방법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제 3장에서 진화론적 합리주의의 인식론적 시각에서 구성주의적 합리주의를 비판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구성주의의 4가지 오류를 지적할 것이다. 이러한 오류의 지적은 두 가지 점에서 의미가 있다. 첫째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념의 오류가 밝혀지고, 둘째로 두 이념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드러내진다. 제4장에서는 진화론적 합리주의 사상이 중시하는 진화적 이성을 자리매김 하고자 한다. 이로써 진화론적 합리주의의 존재 가치를 부각시키고자 한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두 이념의 차이를 요약한다.

우선 한 가지 밝히고 싶은 점은 이와 같은 이념적 평가를 내리는 데 필요한 필자의 기본적인 지적 자산은 구성주의적 합리주의에 대한 비판을 평생 주제 중의 하나로 여겼던 하이에크의 진화론적 합리주의 사상이라는

것이다.

2. 두 가지 합리주의에 관한 역사적 개관

두 가지 합리주의 사상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각 사상이 내걸고 있는 캐취 프레이즈를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이 캐취 프레이즈 속에 각각 지식의 성격에 관한 전제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진화론적 합리주의가 구성주의적 합리주의로부터 밀려나 19세기~20세기 내내 후자의 패러다임이 지배했고 그리고 21세기에도 이것이 계속해서 지배할 것으로 여겨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따져보고자 한다.

2-1 프랑스 계몽주의와 구성주의적 합리주의

구성주의 접근법의 창시자, 그리고 구성주의적 합리주의의 중요한 해설가는 데카르트이다.¹⁾ 그는 잘 알려져 있듯이 이성을 분명하고 명백한 전제조건으로부터 논리적으로 연역된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논리를 통해 정당화될 수 없는 제도나 행동규칙은 그 정당성을 박탈당했다. 명백한 그리고 논증할 수 있는 진리에 의해 결정된 사회제도와 관행만이 합리적이고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제도와 관행, 도덕과 법을 따르는 것은 불합리하고 미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전통과 관습, 관행 그리고 일반적인 역사도 경멸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경멸적 태도는 구성주의적 합리주의의 핵심적 요소가 되어 버렸다.

성격상 정당화 될 수 없는 자생적인 관습과 전통을 구성주의적 합리주의가 얼마나 경멸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이 사상을 확산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미 잘 알려진 볼테르를 인용하자²⁾: “만일 당신이 훌륭한

1) 그 후 그를 추종하는 프랑스의 많은 철학자들이 그의 사상을 확대 발전시켰기 때문에 구성주의적 합리주의를 프랑스 계몽주의라고도 부른다.

2) 예를 들면 F. A. Hayek, *Law, Legislation and Liberty*, vol.1 : Rules and Order, London, 1973, 정순훈 역, 『신자유주의와 법』,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1. 39쪽

법을 원한다면 지금의 법을 불살라 버리고 새것을 만들어라” 이것은 개혁을 원한다면 새사람으로 바꾸어야한다는 수혈론과 똑같다. 개혁주의는 구성주의의 또 다른 표현이다.

구성주의적 합리주의자로서 국민주권 사상을 제기한 루소를 들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인간에 의해 의도적으로 제정된 법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법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의 국민주권 사상은 민주주의 제도가 오늘날까지 서구사회에서 무제한적 권한을 얻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³⁾

위의 두 철학자를 프랑스의 구성주의 사상의 대표자라고 한다면, 다른 나라의 구성주의자들은 다음과 같다. 예를 들면 흄스 그리고 베이컨, 벤담, 오스틴 등 영국학자들, 한스 켈센을 비롯한 독일의 법 실증주의자들이다. 이들은 합리주의적 자연법철학자들 처럼 한결 같이 모든 법은 무제한적 권력을 가진 어느 한 주권자의 의지 (자연법론자들의 경우는 경험과 독립적인 객관적인 도덕적 원칙)에서 도출되어야 하며, 법은 구체적인 사회적 목표를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⁴⁾

이상에서 열거된 인물들을 보면 모두가 프랑스 계몽주의자들, 그리고 이들의 영향을 받은 철학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성주의와 프랑스 계몽주의는 동전의 양면이다.

구성주의 철학자들은 역시 생 시몬, 콩뜨와 같은 맑스 이전의 사회주의자들 그리고 맑스와 맑스 이후의 사회주의 전통이다. 간단히 말한다면, 이들은 모두 인간이성에 의해 그들이 원하는 사회를 계획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20세기 구성주의의 대표자는 케인즈와 그의 비도덕주의가 아닐 수 없다. 모든 구성주의자들이 그렇듯이, 케인즈도 전통적인 도덕과 풍속, 그리고 관습이나 전통 자체가 지닌 지해를 총체적으로 부정했던 것이다.⁵⁾ 그리고 그는 인위적으로 사회를 균형적으로 발전 경로를 조종할 수 있다고 믿었

3) 구성주의적 합리주의와 국민주권사상의 관계에 관해서는 하이에크(1969) 참조

4) 법실증주의는 주류경제학의 후생경제학과 동일하다.

5) F. A. Hayek, *The Fatal Conceit*, Oxford, 1988, 신증섭 역: 『치명적 자만』, 자유기업센터 1996, 118-119쪽

다.

이 밖에도 수많은 현대적 철학자들을 들 수 있다. 예컨데, 푸코(Foucault)와 하버마스이다. 이들은 개인들의 의식적인 동의가 없는 질서는 소외를 초래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않은 자생적으로 성장된 질서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해방 신학도 예외가 아니다. 문화적 진화의 선물인 도덕으로부터 해방시키고 그 대신에 원시적 본능의 소산인 연대성 도덕과 이타심을 기초로 하는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기 때문이다.⁶⁾

그리고 모든 사회계약론도 구성주의의 후손이다. 그것은 인간은 자신의 문화로부터 초월한 입장에서 목적에 합당한 도덕을 고안해 낼 수 있는 지적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우리가 이 역사적 개관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구성주의 이념들의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목적 의식적인 사회통제와 사회개혁을 강조,
- 자생적으로 형성된 제도의 중요성을 무시,
- 오로지 언어로 표현된 명시적 지식만을 강조,
- 오로지 증명된 지식만을 강조.

2-2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와 진화론적 합리주의

진화론적 합리주의 사상의 출발점은 사회적 현상들 중에는 인간행위의 결과이기는 하지만 인간계획이 아닌 것, 즉 자생적 질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생적 질서관의 기원은 16세기 스콜라 학파이지만, 결정적인 계기는 문화적 진화론과 자생적 질서관을 본격적으로 형성한 18세기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들이다.⁷⁾ 이들이 오늘날 진화사

6) 하이에크(1988) 130쪽. 구성주의적 합리주의사상의 내용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 하이에크가 든 예(125쪽)를 재론하자, 과학적 정당화를 부여할 수 없거나 관찰을 통해 증명할 수 없는 것, 이해할 수 없는 것, 결과를 미리 알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은 모두 불합리하다.

7) 이하에 관해서는 Hayek (1973,1991), Hamowy, R. *The Scottish Enlightenment and The Theory of Spontaneous Order*, Southern Illinois Univ., 1987

상과 특히 오스트리안 경제학과의 창시자인 멩거와 하이에크의 진화사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대표자들은 데이비드 흄, 아담 스미스, 아담 퍼거슨 등이다.

흄은 이성이 한계가 있음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치와 법 그리고 도덕을 인위적으로 계획하여 만드는 것이 극도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당시 합리주의적 자연법 사상과 사회계약론을 비판했다. 그에겐 도덕은 신이 만든 것도 아니고, 인간이성의 결과도 아니다. 진화적 과정에서 생겨난 뜻밖의 결과다. 그는 유토피아적 개혁을 포기할 것을, 그리고 도덕적으로나 지적으로 제한된 현실적 인간을 중심으로 사회이론과 철학을 개발할 것을 촉구한다.

아담 퍼거슨은 자생적 질서의 진화적 접근법에 대한 기본적인 확신을 제공한 인물이다. 그는 사회적 현상의 생성은 “인간 행동의 결과이지, 인간에 의한 디자인의 집행이 아니라고(the result of human action, but not the execution of any human design)”주장한다. 이 인용된 문장은 진화와 자생적 질서의 쌍둥이 이념을 가장 적합하게 표현한 말로서 오늘날 진화론자들의 대명사가 되었다.

아담 스미스는 도덕분야와 경제부문에 자생적 질서관과 진화론적 접근법을 적용했다. 이 적용이 흔히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그는 두 가지 종류의 덕, 즉 소극적(negative)덕과 적극적(positive) 덕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적극적인 덕보다 소극적인 덕이 거대한 사회를 위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소극적인 덕의 생성을 진화 이론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다.(Smith, 1978) 스미스는 역시 합리주의적 자연법사상과 사회계약론을 비판하면서 정치와 법의 인위적 형성에서 인간이성을 과대평가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진화와 자생적 질서의 쌍둥이 이념을 발전시킨 또 다른 사상가들로서 버크(E.Burke), 독일의 법사학자인 홈볼트, 헤르더 그리고 사비그너를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모두 진화론을 법 분야에 적용했다.

이러한 문화적 진화사상은 그 후 오스트리아 학파의 창시자인 멩거(C.Menger)에 의해 계승되었고, 결국에 가서는 하이에크가 이 모든 사상이

들의 진화사상을 종합하고 발전시킨 것이다.

이상의 설명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진화사상의 기원은 생물학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들의 사상에서 나온 것이고, 이들의 사상을 독일의 법사학자들이 계승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그들의 진화론적 접근법을 생물학에 전용한 것이 바로 다윈(Ch. Darwin)이라는 것이다. (Hayek, 1973). 심지어 유전학(genetics)이라는 말도 원래 생물학에서 만들어진 용어가 아니라, 헤르더가 고안한 말이다. 따라서 우리는 진화이론을 말하거나 이 말을 들을 때 생물학을 연상할 필요가 없다. 다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문화적 진화이론은 생물학적 진화이론을 무비판적으로 답습하지 말고, 이것과는 다르게 개발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과학이 자연과학을 모방하려는 노력에서 생겨난 과학주의의 오류를 범하게 된다.

우리는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종합하여 진화주의 사상의 키워드를 구성주의의 그것과 다음과 같이 대비시킬 수 있다:

- 인위적인 것 대신에 자생적인 것의 중요성을 강조,
- 목적합리성 대신에 가치합리성을 강조,
- 말로 표현되지 않은 암묵적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
- 증명되지 않은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

2-3 진화론적 합리주의 사상의 몰락과 부활

진화론적 합리주의 사상은 구성주의 사상에 의해 밀려난 채, 이 후자의 사상이 19세기 이후 20세기 내내 서구사회를 지배했다. 그리고 우리 동양 사회도 마찬가지이다. 왜 그랬을까? 진화적 접근법이 몰락한 원인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첫째가 사회다윈주의의 등장으로 인하여 문화적 진화이론이 불신을 받게 되었다. 사회다윈주의는 제도와 관행의 선별보다 개체의 선별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 전수되는 인간들의 능력보다는 타고난 능력에 초점을 맞추었다. '적자 생존'이라는 용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적 사고에 대해 거부감을 갖게 되었다. (Hayek, 1969, 1973)⁸⁾

문화적 진화이론에 대한 불신은 진화이론에 대한 또 다른 오해에서 비롯된다. 즉 진화이론은 진화법칙 또는 발전법칙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회다윈주의자들의 믿음이다. 이 법칙을 기초로 하여 진화과정의 미래경로를 예측하고 설명하려 했던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진화이론에 대한 전형적인 오해이다.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들 및 이들의 사상을 생물학에 적용한 다윈은 진화의 법칙을 찾으려 했던 것이 아니라, 진화의 '원리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려 했다. 인간이성의 '절대적 한계'때문에 우리는 장래의 구체적인 결과나 진로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발전법칙, 진화법칙은 콩트, 헤겔, 맑스 등의 역사학과와 이들의 방법론적 집단주의에서 생겨난 것이다.⁹⁾

문화적 진화이론이 밀려나게 된 두 번째 이유는 종교가 세속화된 나머지, 그것이 전통적으로 전수되어 온 도덕과 법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 틈을 타고 이성이 위세를 장악하게 되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자연과학의 성공으로 인하여 사회과학이 자연과학을 모방한 '과학주의'의 결과이다. 사회과학도 자연과학만큼 사회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고, 사회의 제도와 법을 계획하기 위한 이상적인 수단이라고 믿었다.

이와 같이 몰락한 진화이론을 다시 복원하고 이를 확대 발전시키려고 노력한 20세기의 중요한 인물은 하이에크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사상과 관련된 부분만을 간단히 요약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으리라고 본다. 하이에크의 진화사상은 세 가지 차원을 가지고 있다.

- (1)개인적 차원에서의 지식의 진화
- (2)사회적 차원에서의 지식의 진화
- (3)행동규칙과 제도 그리고 도덕의 진화

첫 번째 차원과 관련된 진화론은 진화론과 인지이론을 결합한 진화적 인식론인데, 이것은 그의 저서 '감각적 질서'¹⁰⁾에서 다루고 있다. 즉 개인

8) 이에 대한 간단한 요약에 대해서는 민경국(1996)

9) 방법론적 집단주의도 역시 인간이 사회를 벗어날 수 있다는 인식론적 오류를 전제로 한 것이다.

들의 학습과 혁신, 정신작용의 원리 및 그 진화를 다루고 있다.

두 번째 차원에서는 지식이 확산되고 검증되는 절차로서 시장경제의 경쟁을 다루고 있다. 경쟁을 알지 못했던 지식을 발견하는 발견적 절차로 파악한다. 세 번째 차원에서 하이에크는 문명의 진보를 위한 기초로서 행동규칙과 그리고 이를 지탱해주는 도덕의 생성과 확산 및 보유과정을 다룬다. 도덕과 행동규칙은 수많은 지식을 담고 있다. 그들은 지식을 담고있는 지식그릇이다.

문화적 진화과정에서 다양한 전통이나 관행들 중에서 다른 그룹보다 더 큰 번영을 가져다 주는 관행이 실시되고, 이것이 전통으로 정착된다. 물론 이 행동규칙들이 그 그룹에게 반드시 알려질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하면, 문화적 진화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발생하고 우리의 정신과 이성 대부분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형성된다.

하이에크는 스코틀랜드의 도덕철학의 전통 속에서 다음과 같이 묻고 답변하고 있다. 자유를 보장하는 추상적 행동규칙들이 실시될 수 있었던 문명이 왜 번영을 누리고 있는가? 그는 이 문제에 대하여 지식 이론적으로 대답하고 있다. 즉, 행동규칙들이 인간들에게 지식을 창출하고 실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그의 사상은 1980년대 이후 힘을 얻었고, 이로 인하여 오랫동안 잊혀졌던 스코틀랜드의 진화사상과 더불어 진화적 합리주의는 오늘날 다시 부활하고 있다.¹¹⁾ 이러한 부활의 계기는 구성주의적 합리주의의 근본적인 사고방식중의 하나인 지식의 자만과 그리고 이 자만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계획사상에 대한 불신이 아닐 수 없다.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또는 가질 수 있는 지식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계획사상의 최고절정은 20세기 복지사상과 함께 케인즈주의와 사회주의이다. 진화적 합리주의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계획경제는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 (비효율성론)이 아니라, 계획경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

10) F. A. Hayek, *The Sensory Order*, Oxford, 1952, 민경국역, 감각적 질서, 자유기업원 2000

11) C. Herrmann-Pillath, "The Brain, Its Sensory Order, and the Evolutionary Concept of Mind", in *Journal of Social and Evolutionary Systems* 15(2), 1992

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지식의 한계와 이로 인한 인간 이성의 구조적인 한계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구성주의에 대해 진화론적 합리주의가 비판하는 핵심적 내용이다. 따라서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3. 진화론적 인식론의 시각에서 본 구성주의의 오류

진화론적 인식론이 제시하는 중요한 주제를 중심으로 하여 구성주의적 합리주의가 이해하고 있는 인식론의 오류를 찾고자 한다. 진화론적 인식론이 제공하는 중요한 주제는 무엇보다도 인간이성의 구조적 한계와 그리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암묵적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두 가지 주제와 그리고 이로부터 도출된 주제를 설명하면서 구성주의의 오류를 밝히고자 한다.

진화론적 시각에서 볼 때 그 오류는 네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그 첫째 오류는 인간이성에 대한 제한 없는 신뢰이다. 둘째가 명시적인 지식만을 유일한 지식으로 간주한다는 점이다. 셋째가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만든 질서만을 소망스러운 질서로 여긴다는 것이다. 넷째로 사회과학이 과학이 되기 위해서는 자연과학적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오류들을 차례로 설명하고자 한다.

3-1 인간이성에 대한 믿음의 오류

구성주의적 합리주의는 인간의 의도와 관련시켜 인간 본성(예컨대 이기주의, 이타주의)이 무엇이나에 너무 치우쳐 왔다. 다른 한편 그 사상은 인간이성의 능력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다. 행동 동기와 완전한 지식을 기초로 하여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천적으로 사회질서를 구성한다.

그러나 진화론적 합리주의는 사회질서와 관련하여 인간행동의 동기는 결정적일 정도로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 대신 개인의 삶에 있어서나 사회질서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지식의 문제로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적 인식론자들, 예를 들면, 로렌츠(K. Lorenz)가 삶을 지식 습득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¹²⁾ 하이에크도 인간의

개인적 삶이나 사회적 삶을 자원의 배분 문제나 재산 또는 소득 분배문제로 취급하지 않고 지식의 문제로 취급하고 있다. 왜냐하면 인간이성은 구조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이다.¹³⁾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완전한 지식의 세계에서는 법이나 도덕과 같은 행동규칙들은 불필요하다는 점이다.¹⁴⁾

우리가 여기에서 하이에크의 진화론적 인식론을 기초로 하여 인간이성의 절대적 한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그는 자신의 저서 『감작적 질서』에서 구조적 무지(constitutional ignorance)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출발한다. 즉, X가 Y를 설명할 수 있기 위해서는 X가 Y보다 복잡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어떠한 분류장치도 분류할 대상보다 큰 정도의 복잡성을 소유하고 있어야 그 대상을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Hayek, 2000: 316) 그리고 이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일종의 괴델 법칙(수학자 K.Gödel)과도 유사하다. 그런데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인간 정신은 자신의 외부 세계보다 훨씬 덜 복잡하게 짜여져 있다. 인간정신은 자신의 외부세계를 축소시킨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이 의미는 구성주의와 어떤 관련을 갖고 있는가?

첫째로 인간정신은 “자신의 외부세계인 물리적 질서가 인간의 정신적 질서로 번역되는 과정, 다시 말하면 인간정신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임일섭, 2000: 78)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인간정신은 자기 스스로를 완전히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어느 한 정신이 자신의 정신 자체도 완전히 알 수 없는데, 하물며 수많은 정신들이 작용하여 형성되는 사회적 과정을 완전히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다만 정신의 작동원리, 사회의 기능 원리만을 설명할 수 있을 뿐이다.(Hayek, 2000: 330)

12) R. Riedl, “Leben als kenntnisgewinnender Prozess bei Konrad Lorenz”, in Riedl(Hrg) *Entwicklung Evolutionärer Erkenntnistheorie* Wien, 1987, p. 47~57

13) Min Kyung-Kuk, “Hayek on Constitutionism”, in Cha In-Suck(ed) *Teaching Philosophy of Democracy*, Seoul National Univ. Press 2000

14) F. A. Hayek, *Verfassung der Freiheit*, Tübingen 1971, 김균 역, 『자유헌정론』, 자유기업원, 1996 61쪽 이하(번역판에서 인용)

둘째로 인간정신은 물리·화학적으로 작용하는 신경 감각적 질서(신경 질서)라는 분류장치의 산물이다. 이 분류장치는 외부의 물리적 세계를 추상화시키고, 이 세계 중에서 자신과 관련이 있는 부분만을 선별하여 해석한다. 따라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선별적이고 부분적이다. 그리고 외부 세계에 대한 인식은 인간들이 각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분류장치(인지도구)에 의한 독자적인 해석의 결과이다. 따라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주관적이다. 그리고 인간은 자기를 초월할 수도 없다.

이상의 설명만으로도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오류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여겨진다.¹⁵⁾ 그리고 인간이성은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것 같다. 따라서 이성의 한계는 구조적이고 영원하다. 이것이 인간본성이자 동시에 삶의 조건이다. 이 모든 것은 구성주의의 선구자, 데카르트의 합리주의적 인식론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다.

3-2 명시적 지식의 유일성 오류

구성주의적 합리주의는 명확한 지식, 즉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지식만을 합리성의 개념에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이 지식은 'x이면, y이다'라는 식의 구제적이고도 적극적(positive) 지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즉, 우리 인간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알지 못하면서도 행동한다는, 그리고 '초 의식적인' 행동 규칙에 따라 사물을 인지하고 행동한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하이에크의 정신이론에서 배울 수 있듯이, 인간들의 정신은 추상적인 행동규칙들 체계 그 자체이다. 그리고 이 행동규칙체계는 매우 복잡하며, 계층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규칙체계를 통하여 인간은 자신의 외부세계를 해석하고 경험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다음 네 가지이다.

첫째로 이 계층 속에서 근본적인 행동규칙 일수록 점차 '초 의식적

15) 자세한 설명에 관해서는 민경국(1996), 임일섭(2000), H. Bouillon, *Ordnung, Evolution, Erkenntnis*, Tuebingen, 1992

(superconscious)'이라는 점이다.¹⁶⁾ 우리가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초의식적 행동규칙의 존재 때문에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의식적으로 학습할 수 있고, 또한 의식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오로지 의식성 또는 의도성만을 강조하는 구성주의자들은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정신을 의식적 부분과 초 의식적 부분으로 구분할 경우, 이 구분은 마치 산정상만 보이고 나머지는 구름으로 둘러싸여 있는 산과도 같다. 의식적인 경험들은 구름 위에 우뚝 솟은 산 정상이고 초 의식적인 경험은 구름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과 동일하다. 이 부분은 구름으로 싸여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는 산 정상이 존립할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그 부분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의식적인 경험은 덜 의식적인, 또는 초 의식적인 이미지의 광범위한 기초에 의존한다.

따라서 구성주의가 의식적인 경험의 중요성 또는 의식적인 정신작용의 그것을 강조하는 것은 어쩌면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우뚝 솟은 산 정상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의식적인 경험이 두드러지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 의식적인 경험의 중요성을 무시한 결론은 한낱 기만에 지나지 않는다.

둘째로 인간들의 정신을 구성하고, 이로써 그들의 인지와 활동을 결정하는 이 추상적인 행동규칙들은 선천적으로 그리고 후천적으로 인간개체의 진화과정 속에서 형성된다. 이 행동규칙들은 지식 이론적으로 해석한다면, 세계에 관한 지식을 담고 있다. 따라서 초 의식적 규칙들은 폴라니(M. Polanyi)와 라일(G. Ryle)의 표현을 빌려 사용한다면¹⁷⁾ 암묵적 지식(Cimplicit knowledge)"이라고 볼 수 있다.¹⁸⁾ 이것은 알기는 아는데 그러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식이다. 또는 말로 표현하려고 애써도 표현할

16) 하이에크는 잠재의식(subconscious)과 구분하기 위해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

17) M. Polanyi, *The Personal Knowledge, Toward a Post-Critical Philosophy*, London, 1957. G. Ryle, *The Concept of Mind*, London 1949

18) 추상적이고 암묵적인 행동규칙들은 첫째로 특정의 구체적인 목적을 위한 규칙이 아니다. 둘째로 규칙에 따르는 행동의 구체적인 결과를 미리 알 수 없고, 충분히 관찰 할 수 도 없다. 그리고 셋째로 암묵적인 규칙들은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 자를 결코 알 수 없다'는 의미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비이성적이다.

수 없는 지식이다. 정의감 또는 법 감정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교묘한 재주, 순발력 등이 이에 속한다. 따라서 인간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 이 암묵적 지식은 말로 표현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사회적 삶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지식은 명시적 지식의 광범위한 기초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식이야말로 인류문화의 초석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은 증명할 수도 없다. 이러한 지식은 논리적으로 도출될 수도 없다. 명시적인 그리고 증명할 수 있는 지식만을 지식으로 여기는 구성주의적 합리주의는 인류 문화의 파괴자일 뿐만 아니라,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 넣는 인간 살인자라고 말한다고 해도 과장된 표현은 아닐 것이다.

셋째로 암묵적 지식 및 이를 담고 있는 추상적인 행동규칙들은 적극적인 인 지식이 아니라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가 하는 소극적(negative)지식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인간을 오로지 목적 합리적 동물로만 취급하려는 구성주의적 합리주의는 인간을 잘 못 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오히려 인간은 목적을 추구하는 동물일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규칙을 따르는 동물(rule-following animal)이다¹⁹⁾. 적극적 지식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소극적 지식도 인간들의 사회적 삶에 중요하다. 소극적 지식은 소극적 지식을 광범위하게 기반으로 하고 있다. 소극적 지식의 존재 때문에 비로소 적극적 지식이 가능하다. 그리고 소극적 규칙 때문에 역시 목적추구가 가능하다.

넷째로 우리의 정신과 행동을 지배하는 추상적 행동규칙들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초 의식적인 행동규칙, 그리고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암묵적 지식의 존재로 인하여 우리는 다양한 문화나 관습, 관행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우리는 타인들의 행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고 이로써 우리는 타인들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기반으로 하여 우리는 타인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²⁰⁾

19) Wittgenstein의 경우 규칙에 따르는 행동은 의식적인 것이라는 해석에 관해서는 J. Gray, *Hayek on Liberty*, London, 1983, p.25

경험과 학습을 통하여 전수된 문화적 유산은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을 위해 필요한 우리 인간의 사고 능력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외부 세계에 대한 해석과 행동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하이에크는 문화가 우리의 사고 능력과 세계관 및 세계에 대한 해석을 결정하는 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언어를 예로 하여 설명하고 있다.²¹⁾ 그에 의하면, 언어의 매개체를 통하여 전달되는 것은 이전시대의 지식뿐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언어의 구조 자체는 세계에 관한 특정한 견해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언어의 습득은 세계를 해석하는 규칙과, 적절하게 행동하는 규칙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는 암묵적인 규칙과 그리고 암묵적 지식까지도 습득한다.

이상의 설명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의 지식은 의식적이고 명료한 지식을 통해서만 향상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모든 지식은 과학적 명제로 환원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도 없고,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수많은 지식들이 우리의 개인적 삶과 그리고 사회적 삶을 윤곽하게 만들고 있다.

인간들이 사는 전체 사회의 구성구석에서 그들이 타인들과 다양하게 수많은 교제나 사업관계를 맺고자 할 때, 그들을 안내하고 도와주는 지식들은 바로 관료나 학자나 정치가 어느 누구도 접근하기가 불가능한 암묵적 지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두 번째는 관행, 전통 그리고 도덕규칙 등과 같은 문화를 이해하고 인간들의 소통과정을 지배하는 초의식적 행동규칙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사회 속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된 문화적 가치들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개혁을 비판하고 평가하기 위한 규범적 잣대라는 점이다. 이러한 가치를 무시하고 오로지 명시적 지식의 중요성만을 인

20) 초의식적 규칙들의 존재로 인하여 우리는 비로소 낮모르는 사람들과도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다(임일섭, 1999:199-207)

21) Hayek(1969) 80쪽 휘프(B.L. Whorf)와 하이에크의 비교에 대해서는 민경국(1996) 52쪽, 또한 언어와 인식의 문제에 관해서는 G. Vollmer, *Evolutionäre Erkenntnistheorie*, Stuttgart, 1983, 141-6쪽

정한 결과로서 작성된 모든 개혁은 실패할 것이 일백 퍼센트 확실하다.

3-3 사회질서의 이분법적 사고의 오류

구성주의적 합리주의는 사회적 과정을 정확히 계획하고 이 계획에 따라 목적 의식적으로 사회적 과정을 조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다. 이러한 생각은 모든 사회적 현상을 '자연적인 것(physei)'과 '인위적인 것(thesei)'으로 분류하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다. 소피스트학과 이래 서양사상을 지배했던 이분법적 사고들은 구성주의자들의 구미에 맞았을 것이다.²²⁾

구성주의 접근법에 따르면, 인간행동의 결과로서 생겨난 모든 것은 인위적이고, 모든 인위적인 것은 완전한 이성을 가진 인간에 의해 합리적으로 계획될 경우에만이 훌륭하고 합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방식은 문화적 현상을 분류할 수 없다. 초의식적 행동규칙, 그리고 이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수많은 사회제도와 도덕 및 관습, 언어 등은 문화적 현상인데, 그들은 인간행동의 결과이지만, 인간계획의 결과가 아니다. 따라서 이 문화적 현상을 이분법적 사고에 의해서는 분류할 수가 없다.

따라서 제3의 개념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자생적 질서이다. 그리고 이러한 질서는 자연적이지도 않고, 계획된 것도 아니다. 이 개념의 등장으로 인하여 비로소 사회과학이 존재의미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스코틀랜드 도덕철학자의 공로는 대단히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분법만을 고수한다면 사회과학은 불필요하고 불행하게도 계획하는 실체의 심리만을 연구하는 심리학만 존재할 것이다. 인위적 질서만을 인정하는 사상은 사회과학 자체를 부정하는 사상이다.

인위적으로 사회를 구성하는데 필연적으로 생겨날 구성주의 접근법의 인식론적 문제를 밝혀내기 위해서 인위적 질서와 자생적 질서의 성격을 비교 설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인위적 질서는 이 질서를 구성하는 성원들이 공동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질서는 말하자면 목적 합리적 질서, 목적이 지배하는(teleocratic) 질서이다. 이 때 달성하고자 하는 집단적 목표는 분배적 정의, 경제성장 목표 등과 같이 사회적 과정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특정의 결과이다. 집단적 목표는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없이 많다.

따라서 구성주의적 합리주의는 언제나 결과 지향적으로 사고한다. 그 사상은 소망스러운 특정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사회를 조종한다는 의미에서 수단주의적으로 사고한다. 다시 말하면 사회질서를 특정의 집단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긴다.

요컨대 인위적 질서 사상에서는 정의나 법질서는 얻고자 하는 특수한 결과(집단적 목표)로부터 도출하고, 또 사회적 과정을 집단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긴다. 따라서 사회 구성원들은 이 집단적 목표에 예속된 채,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자신의 개인적 삶을 추구할 수가 없다.

스스로 생성되고, 스스로 교정되고, 스스로 조직되는 자생적 질서는 사회구성원들이 추구할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들은 각자 자신들이 정한 개별적인 목적을 추구한다. 공동의 목적은 없고 개인들이 각자 추구할 개별적 목적만이 존재한다. 그렇다고 해서 자생적 질서에는 “공동의 것”이 없단 말인가? 아니다. 공동의 것이 있다. 이것이 공동의 문화이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추상적인 행동규칙이다. 공동의 목적 대신에 개개인들이 지키는 공동의 추상적인 행동규칙들이 존재한다.

자생적 질서의 행동규칙들은 특정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의 행동을 보편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행동규칙이다. 그들은 탈 목적적이다. 이러한 행동규칙들의 체계 내에서 개개인들은 자유롭다. 자유는 따라서 규칙과 결부된 자유이다. 그러나 인위적 행동규칙은, 이 질서의 성격이 목적 지향적이기 때문에, 언제나 달성하고자하는 목적과 결부되어 있다.

자생적 질서의 추상적 행동규칙들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초 의식적 행동규칙들을 비롯하여 관행이나 관습, 도덕규칙과 같이 막연하게나마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행동규칙들로 구성된 매우 복잡한 체계를 형성한다. 물론 성문화되어 있는 것들도 있다.

어쨌든 추상적인 행동규칙들과 관련하여 중요한 점은 다음 네 가지이다. 첫째로 이들은 일반적 추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둘째로 이들은 생물학적 진화의 선물도 아니고 이성에 의해 고안된 것도 아닌 문화적 진화의 선물이다. 셋째로 이러한 추상적인 행동규칙들은 개개인들에게 자유를 지켜주고 이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자유를 보장하는 행동규칙(정의로운 행동규칙)이다. 넷째로 이 행동규칙들이 문화적 진화의 선물이기 때문에 자유는 본능의 산물도 아니고 이성에 의해 고안된 것도 아니다. 그것은 문화적 진화의 선물이다. 역시 자유를 기초로 하는 자생적 시장경제도 문화적 진화의 선물이다.

오늘날과 같이 복잡한 인간사회는 이러한 자생적 질서에 근거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가 없다. 따라서 자연과학적 방법과 전통을 철저히 이어받은 구성주의가 지향하는 것처럼 인간 이성이 이러한 복잡한 인간사회를 목적 지향적으로 조종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3.4 과학주의의 오류

구성주의적 합리주의는 사회적 과정을 특정의 집단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인간이성은 집단적 목표에 적합한 사회적 과정을 계획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한가? 어떤 계획 담당자(학자든 정치가든 관료든 상관없다)가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당장 필요한 것은 수많은 지식이다. 그런데 이 지식은 사회의 불특정 다수의 인간들 사이에, 익명의 인간들 사이에 흩어져 존재한다. 이 지식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 첫째가 계량화 할 수 있는 지식, 둘째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지식, 그리고 셋째로 말로 표현조차 할 수 없는 지식이다.

모든 지식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지식이라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해도 각처에 분산되어 존재하는 지식을 어느 한 정신이 전부 수집하여 이를 계획에 사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실천적인 불가능성이다. 그러나 절대적 불가능성이 있다. 그 불가능성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즉, 사회적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인간들이 외부세계에 대하여 갖고 있는 생각과 태도, 의견이다. 이들은 외부세계를 인간정신(두뇌)에 의해 독자적으로 해석한 주관적인 지식이다. 이 주관적인 지식 중에는 명시적인 지

식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암묵적인 지식도 많을 것이다. 인지 심리학자 와이머(W. B. Weimer)는 명시적인 지식은 암묵적 차원 위에 놓여 있는 얇은 베나아 판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함으로써, 이 명시적인 지식의 규모를 말하고 있다.²³⁾ 어쨌든 계획담당자가, 암묵적 지식의 의미가 말해 주고 있듯이, 이 암묵적 지식에 접근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사실은 인간들의 행동을 산출하는 지식은 주관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명제는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이원주의를 말해 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 이원주의의 필연성을 설명해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구성주의의 중요한 오류를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사회과학은 자연과학을 무비판적으로 모방해 왔고, 이러한 모방의 탓으로 마치 기계를 설계하여 제작하듯이 인간들이 사는 사회를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다고 믿는 과학주의의 미신을 전제했다.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구분시켜 주는 중요한 점은 우리의 정신이 이 두 가지 분석영역의 여건들(data)을 서로 다르게 분류한다는 점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자연과학에서는 관찰된 대상들의 물리적인 의미에서 객관적 특성에 따라 이들을 분류한다. 물리학자들은 물리적 대상들끼리의 관계를 기술하는 이론에 의해 외부세계를 재구성한다. 따라서 자연과학의 자료는 인지하는 주체와 독립적인, 감각기관에 의존하지 않는, 물리적 객관적 속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과학에서는 계량과 수리를 중시하고, 또 모든 과학적 명제를 수리적 계량적 명제로 작성하는 것을 매우 중시한다.

그러나 사회과학의 자료는 자연과학의 자료와는 전적으로 다르다.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사회과학은 사물들끼리의 관계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사물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간의 관계를 다룬다. 그런데 사회과학의 자료가 되는 것은 인간들이 타인들(사물들)에 대해 갖는 태도, 견해, 신념과 같은 것들이다. 이들은 개개인들의 정신작용을 통하여 산출된 것이다. 따라서 이 자료들은 인지하는 주체(즉 개인들), 인지하는 정신적 태도에 좌우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들은 인지하는 정신과 독립적으로는 결코 존재할 수가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과학의 자료는 주관적이다.

23) W. B. Weimer, "Hayek's Approach to the Problem of Complex Phenomena", in *Weimer Cognition and the Symbolic Processes* Bd.2., New Jersey, 1982, p.245

그런데 주요한 문제는 과학주의자들이 그렇게 하듯이 이 주관적 자료들을 수리적 또는 계량적 명제로 환원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인간들의 생각, 태도, 의견 등은 객관적인 수리적 명제나 계량적 명제로 환원시킬 수가 없다. 완전히 환원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인간정신이 물리적 자극들이 생각, 태도 또는 의견 등과 같은 정신적 질로 분류되고 번역되는 과정을 완전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인간정신의 우위에 얽아 있어야 한다. 우리가 인간정신을 초월할 수 있는 정신, 말하자면 '초 정신'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하다. 자연과학을 모방하려는 주류경제학, 지식사회학 등 실증주의자들은 자신들은 이러한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²⁴⁾.

그러나 우리가 신(god)의 이름을 도입하지 않고서도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다. 즉,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인간 정신은 자기 스스로를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 수학이나 또는 그 밖의 아이디어 시스템도 마찬가지이다. 어느 한 시스템 자체의 의미는 이 시스템 자신에 의해서는 결코 밝혀질 수 없다. 따라서 학자는 망루에 서서 사회를 바라보고 사회를 조작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자기 기만이자 동시에 지식의 자만이다. 이것은 독재자만이 할 수 있는 기만과 자만이다.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인간정신이란 물리·화학적 작용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사회도 역시 자연과 똑같은 물리적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환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연과 사회, 그리고 육체와 정신은 이원적으로 취급할 수 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사회과학은 자연과학과는 다른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밝히고 싶다. 즉 인간은 자연의 일부, 자연을 구성하는 요소이다. 그런데 모든 시스템은 자기 스스로를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면, 자연으로서의 인간은 자연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 여기에서도 자연과학의 한계를 찾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인간이성이 사회적 과정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목적 의식적으로 계획하고 조종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24) 이러한 의미에서 하버마스를 비롯한 프랑크푸르트 학파나 에어랑겐 학파가 주장하는 '자기초월성'은 허황된 것이 아닐 수 없다.

는 것이다. 그러나 이 불가능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 이것이 바로 시장경제이다. 자생적 질서로서 시장경제는 각처에 흩어져 존재하는, 어떤 정신도 전부 굽어 모을 수 없는 지식의 사용과 지식의 전달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지식이 창출되고 성공적인 지식은 모방을 통해 확산된다. 이때 지식들 중에는 제도나 규칙으로 구현될 수 있는 것도 있다.

자생적 시장경제가 이러한 천재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개인들이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이용하여 각자 자신이 결정할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진화론적 인식론의 시각에서 바라본 자유사회의 원리이다.

4. 문화적 진화, 이성 그리고 본능

구성주의적 합리주의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것은 사회적 정의, 연대감, 공동체적 정신, 사회적 의식과 같은 낱말을 즐겨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낱말이 구성주의가 강조하는 이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단어들이 갖고 있는 도덕적 의미는 집단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모럴이 가장 적합한 질서는 누구나 서로를 알고 있는 소규모 사회일 것이다. 이러한 사회의 전형은 원시 부족 사회였다. 이 부족사회의 기초가 되는 도덕은 연대감, 분배적 평등과 같은 낭만주의적 모럴이었다. 인류는 주로 이 모럴 속에서 살아왔다.²⁵⁾

1992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노스(D.C. North)에 의하면 인류가 다른 영성 동물과 분리되어 살기 시작한 때부터 현재까지 전체 기간을 24시간으로 본다면 그중 23시간 56분 동안 무리를 지어 수렵 채취 생활을 했다. 다시 말하면 연대감을 가지고 나누어 먹으면서 집단활동을 하면서 살아온 것이다. 이런 삶을 면하기 시작한지는 겨우 3, 4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 짧은 기간에 문화가 형성되었고 오늘날과 같은 거대한 사회가 형성된

25) D. C. North, "Economic Performance Through Time", in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4 No 3, 1994, p.364-5

것이다.

따라서 이 집단주의 모델이 인류의 신경구조, 본능과 그리고 타고난 소망들과 함께 형성되어 우리의 본능 속에 정착되어 있다. 이러한 본능적 모델은 인간 사회의 자연적 질서에 해당된다. 이들은 오늘날 사회생물학이 다루고 있는 대상이다²⁶⁾. 그리고 인간사회의 자연적 질서는 공동체주의가 지향하는 질서이다²⁷⁾.

따라서 구성주의는 인간이성을 이용하여 소규모사회의 모델을 거대한 사회에 적용하려는 이념이라고 볼 수 있다. 복지국가 이상, 맑스주의, 프랑크푸르트 학파, 케인즈주의, 공동체주의 이념들은 인간이성에 의해 본능적 소망, 본능적 모델을 거대한 열린 사회에 적용하려는 이념에 지나지 않는다. 말하자면 그 이념들은 이성과 본능의 합작이다. 로저 트리그가 공동체는 인간본성의 실현을 돕는다고 말할 때의 인간 본성이란 본능적 소망을 말한다²⁸⁾.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소규모 사회의 모델을 거대한 사회에 적용한다면 소규모의 사회의 도덕은 물론 열린 자생적 질서의 도덕까지도 파괴된다는 것이다²⁹⁾. 거대한 사회의 모델을 기초로 하는 자생적 질서는 생물학적 진화의 선물도 아니고, 이성의 산물도 아니다. 그것은 문화적 진화의 선물이다. 문화적 진화는 이성과 본능의 중간에 있다.

5. 맺는 말

진화적 합리주의를 중심으로 구성주의적 합리주의와 진화적 합리주의를 비교했다. 이 글에서 진화론적 인식론의 입장을 전달한 내용은 그 일부이

26) O. E. Wilson, *Sociobiology-The Synthesis*, Cambridge 1975

27) 황경식,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차인석 외 공저 사회철학대계 제2권, 민음사 1993

28) 트리그, 최용철 옮김, 『인간본성에 관한 10가지 철학적 성찰』, 도서출판 자작나무 1996, 207쪽

29) F. A. Hayek, *Law, Legislation and Liberty: The Mirage of Social Justice*, London, 1976. 민경국 역, 법, 입법 그리고 자유·사회적 정의의 허구, 자유기업센터 1996.
G. Radnitzky, *Toward a Europe of Free Societies*, in *Ordo*, vol. 42, 1992

지 전부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서 밝힌 진화론적 인식론의 중요한 부분은 구성주의와 대비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말할 수 있다. 구성주의와 현격하게 다른 점은 다음과 같다.

- (1) 진화론적 합리성 개념에서 중요한 것은 지식 성장의 암묵적 차원이 다. 그 차원은 검증할 수도, 의식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는 요소이다. 그것은 문화적 진화의 소산이다.³⁰⁾ 각별히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 과학의 만능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 (2) 구성주의적 합리주의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동안 진화적 현상과 관련된 인식의 발전이 없었다. 이것은 경제학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하이에크의 사상은 바로 이러한 지적인 겹을 제거시키기 위한 좋은 발단이었다.
- (3) 암묵적 지식의 존재는 국가간섭의 한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공하고 있다. 구성주의적 합리주의는 구체적 설명과 구체적 예측을 통하여 얻은 구체적 지식을 가지고 구체적인 집단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진화적 합리주의는 원리의 설명을 토대로 하여 얻은 소극적 지식을 가지고 사회를 개선하려고 하고,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사회의 자생력에 맡기려 한다.
진화적 합리주의의 이러한 생각은 지극히 적실성을 가진 생각이 아닐 수 없다. 사회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사회 전반에 존재하고 있는 전체 지식 중에서 개개인의 지식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감소한다.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자생적 질서의 자생력과 그 진화의 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 (4) 바로 우리의 이러한 주장은 생물학적 진화론자들의 주장과 일치한다. 그들도 인위적으로 자연에 간섭하는 것을 극력 반

30) 하이에크는 포퍼와 유사점을 많이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이에크가 암묵적 차원의 지식성장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포퍼와 구분될 수 있다. 포퍼에게 있어서 합리성은 명시적이다. 반증노력, 잘못된 이론을 제거하려는 노력, 모두 의식적이고 지속적이다. 이것이 지식의 성장의 핵심이다. 그렇다고 포퍼를 구성주의자로 해석할 수는 없다. 그도 역시 지식의 오류가능성 및 지식의 진화를 강조하기 때문이다.

대하고 있다. 그들은 자연에 대한 경외감을 강조한다.

참고문헌

- Bouillon. H., *Ordnung, Evolution und Erkenntnis*, Tuebingen, 1992
- Gray. J., *Hayek on Liberty*, London, 1983
- Hamowy. R., *The Scottish Enlightenment and The Theory of Spontaneous Order*, Southern Illinois Univ. 1987
- Hayek. F. A., *Law, Legislation and Liberty* vol 1, Rules and Order, London 1973, 정순훈 역 『신자유주의와 법』,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1
- , *Freiburger Studien*, Tuebingen 1969
- , *The Fatal Conceit*, Oxford 1988, 신중섭 역, 『치명적 자만』, 자유기업센터 1996
- , *The Sensory Order*, Oxford 1952, 민경국 역, 『감각적 질서』, 자유기업센터 2000
- , *Verfassung der Freiheit*, Tuebingen 1971, 김균 역, 『자유헌정론』, 자유기업센터 1996
- , *Missbrauch und Verfall der Vernunft*, Salzburg, 1957
- Hermann-Pillath. C., "The Brain, its Sensory Order and Evolutionary Concept of Mind", in *Journal of Social and Evolutionary Systems*, 1992
- Hoppmann, E., *Wettbewerb und Wirtschaftsordnung*, Baden-Baden, 1988
- Min. Kyung-Kuk, "Hayek on Constitutionalism", in : Cha In-Suck(ed) *Teaching Philosophy of Democracy*,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2000
- North. D. C., "Economic Performance through Time", in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4, 1994
- Polanyi. M., *the Personal Knowledge*, London, 1957
- Radnitzky. G., *Toward a Europe of Free Society*, in *Ordo* vol. 1992
- Riedl. R., "Leben als erkenntnisgewinnender Prozess" bei Konrad Lorenz, in Riedl(Hrsg.), *Entwicklung Evolutionaerer Erkenntnistheorie*, Wien,

1987

Ryle. G., *The Concept of Mind*, London, 1949

Smith. A.,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박세일, 민경국 역, 『도덕감정론』, 비봉출판사, 1995

Vollmer. G., *Evolutionaere Erkenntnisstheorie*, Stuttgart, 1983

Weimer. W. B., "Hayek's Approach to the Problems of Complex Phenomena", in Weimer, B., *Cognition and the Symbolic Process* Bd.2., New Jersey, 1982

Wilson. O. E., *Sociobiology-the Synthesis*, Cambridge, 1975

민경국, 『진화나 창조나 -하이에크의 진화론적 자유주의 사회철학』, 자유기업센터, 1996

민경국, 『시장경제의 법과 질서』, 자유기업센터, 1996

임일섭, 『행동규칙과 자생적 질서』, 자유기업센터, 2000

하이에크 저, 민경국 편 역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나』, 문예출판사, 1989

황경식,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차인석(외) 사회철학대계 제 2권, 민음사, 1993

Constructivistic Rationalism and Evolutionary Rationalism

Min Kyung-Kuk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larify epistemological errors in constructivistic rationalism which is essential tradition of French Enlightenment. Constructivism trusting human reason unlimitedly, recognizes only the articulated and explicit knowledges as the true ones, and disregards the unarticulated and implicit knowledges. On the basis of their such knowledges, constuctivists make great efforts to intervene and mould human society artificially in various ways.

However, in the light of evolutionary rationalism which is rooted in the Scottish Enlightenment and further developed by Friedrich August von Hayek, constructivistic attitudes toward human reason and knowledges should be considered as fatal errors. 'Irremediable ignorance' is the characteristic for human reason. Most parts of knowledges which human beings acquire during social lives consist of implicit knowledges which are by their nature impossible for scientists to treat scientifically, but are greatly conducive to human social life. These knowledges are subjected to spontaneous cultural evolution.

Cultural evolution is to be understood in terms of collective learning process in which various knowledges are innovated, transmitted and selected, and after all imbedded in tradition, customs and rules of human conduct. This process cannot be comprehended regretablely by the constructivism-oriented scientists

Therefore, the ultimate conclusion of this paper is that science

and scientists should respect the implicit knowledge and spontaneous forces of evolution. This conclusion is the same as that of natural scientists of biological evolution, who confess honestly the great difficulties in explaining and comprehending the nature in detail and moulding it artificially for the human purposes. We should, they emphasize, respect nature and trust in the evolutionary forces.